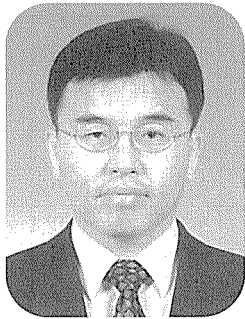


뉴라운드와 우리의 대응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21세기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모색하는 뉴라운드가 지난 11월초 극적으로 출범했다. 이번 협상과정은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국가들은 이해대립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루 연장하면서도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안 도출에 성공했다. 타협이 이루어진 분야는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 문제 등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상은 일괄타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모든 분야에서의 협상은 오는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 수립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협상은 99년말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실추된 WTO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 있는 세계경제의 활성화 및 미국 테러사건 이후 위축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회복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은 WTO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대 쟁점분야였던 농산물 분야는 농업수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간 밀고 당기는 협상이 계속 있었으나 결국 수출국입장이 반영돼 2003년 3월까지 농산물 개방 계획을 제출키로 했다.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라는 전제하에 시장접근의 상당한(substantial) 개선과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의 상당한 감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산 분야의 경우 보조금협정 개정협상의 일환으로 보조금 관련 규율의 명확화와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환경측면(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등)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큰 관심사였던 반덤핑문제도 당초 미국이 2년 후부터 협상을 개시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칠레 등 수출국의 거센 압력으로 협상을 개시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었던 지적재산권 문제는 특허보호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약품 접근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긴급상황일때 선진국의 신약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정부 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에서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경쟁정책의 새로운 이슈는 개도국의 반대와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2년 후에 관련 규범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문제다. 우리나라도 이번 라운드에서 합의한대로 2003년까지 농산물 시장의 개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004년 후에는 개방논의 강도가 더욱 더 높아질게 확실시된다.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당시 인정받았던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당시 면제받았던 관세화도 지속적인 면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으로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향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농업분야에서 관세나 보조금을 대폭 인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만큼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애당초 농산물 수입국은 '점진적(progressive) 개방'을 주장해왔으나 '상당한(substantial) 개방'이 이뤄지도록 합의가 도출됐다.

관세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즉 2005년 이후에 우리가 관세화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시장접근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 시장 개방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수산물도 어민소득증대나 어로경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삭감 또는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이 경우 우리 농·어업이 받는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시장 타격도 우려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허하지 않았던 법률, 의료, 교육, 시정각 등 4개 분야와 통신시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수확을 얻은 분야는 반덤핑규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이 반덤핑 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합의로 우리는 수출의 큰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 셈이다.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입장을 함께 하는 국가들과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개도국 위치에 서야 할지,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지를 사안별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